

경남 방언의 멋과 맛

김정대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

1. 아직도 알 수 없는 ‘엥³꾸³배’의 의미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은 정말 약손이었다. 이것저것 ‘에₁엥기³이느’¹⁾(= 닥치는) 대로 먹다가 배탈이 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그 따스한 손으로 손자 같은 어린 아들의 배를 쓸어내리시면서, 구수한 경남 방언으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묵³구 집³아 무³웠다. 술₁ : 술₁ : 내³리가³라. 내³ 손은 약³소³이고²⁾ 나³ 배는 똥³배고 물³배³고 자래³배고 엥³꾸³배고 씨똥³배고, 묵³구 집³아 무³웠다. 술₁ : 술₁ : 내³리가³라.”

- 1) 첨자는 성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남 방언은 경북 방언과 더불어 성조 언어이다. 경남 방언의 성조 체계에 대해서는 2단설(고조, 저조)도 있으나, 우리는 저조(아래 첨자 1로 표시), 중조(아무런 표시 없음), 고조(위 첨자 3으로 표시)와 같은 3단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에₁엥기³이느’은 ‘저조+중조+고조+중조+중조’에 대한 표시이다.
- 2) 초성에 옛이음(°)으로 표시된 것은 그 앞뒤 모음이 비모음으로 발음됨을 뜻하는 것이다.

(=먹고 싶어 먹었다. 술술 내려가라. 내 손은 약손이고 네 배는 똥배고 물 배고 거위배(횃배)고 영꾸배고 똥배고, 먹고 싶어 먹었다. 술술 내려가라.)

탁월한 리듬까지 곁들여진 어머니 말씀은 주문 그 자체였다. ‘체하다’를 경남에서는 ‘언치³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언치³인’(=체한) 것이 원인이었던 나의 배탈은 어머니의 이런 의식이 치러지고 나면 거짓말처럼 낫곤 했다.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뒤로, 어머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배’(腹)의 종류에 관심을 가졌었다. ‘똥³배’와 ‘물³배³’의 의미를 아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자래³배’를 아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씨동배’와 관련해서는 국어사 관련 여러 자료에서 도움을 받았음을 고백해야겠다. ‘똥’의 중세 국어는 ‘쑹’이지만, ‘ㅅ’계 합용 병서는 된소리 표기라고만 알고 있었던 터라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제주도에서 ‘쑹’을 ‘시똥’으로 발음한다는 등의 증언이 공개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어머니 말씀에 나오는 ‘씨동’도 ‘쑹’과 관련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씨동³’이 ‘똥’의 의미인 줄을 모르게 된 어느 시점부터, ‘똥배’는 ‘씨동³배’와 ‘똥³배’의 형식으로 함께 ‘주문’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영³꾸³배’의 의미는 알 수가 없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여쭙도 보았지만, “‘영³꾸³배’가 ‘영³꾸³배’지!”와 같은 답변을 들었을 뿐이었다. 당신께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씀(소리)만 기억해 두셨지, 정확한 의미까지는 모르셨던 것이다. ‘영³꾸³배’의 의미를 아시는 분, 어디 안 계시나요?

2. 멋과 맛이 함께하는 경남 방언

어느 지역엔들 고유한 방언이 없을까마는, 경남 지역에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한둘이 아니다. “에³나³가?”(=진짜냐?), “에³나³다.”(=진짜다.) 이 말만 나오면 십중팔구는 예사롭지 않은 사건 하나가 터진다는 것을 경남 사람들은 안다. 이것이 혈기 왕성한 10대들 사이에서

나왔다면, 한판의 결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이 20대 젊은이라면, 예기치 못한 모험이 시작된다는 전주곡쯤 되리라.

양미간을 찌푸릴 때 생기는 세로 주름을 뜻하는 ‘새₁뚝’, ‘어³간이 막힌다’ (=기가 막힌다)의 ‘어³간’, 부추겨 주니까 실제 이상으로 과잉 행동을 함을 뜻하는 ‘녁³삼³’, 은근히 부추기거나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여들음을 뜻하는 ‘봉₁금’,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남녀가 결혼하여 그 마을에서 살게 될 경우에 붙여지는 택호인 ‘지³동댕’ 등등은 경남 지역이 아니고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대표적인 몇 명사이다.

‘매³착없다’ (=쓸데없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상³그랍다’ (=칼이나 낫 따위의 날이 날카롭다, 길이 좁고 가팔라서 위태위태하다), ‘싫다’ (=싫다), ‘준₁주라³다’ (=몸조리하다, 절약하다)와 같은 동사(형용사 포함), ‘내₁ : 나’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³비’ (=관계치 말고, 관심 없이), ‘디³리³끼’ (=전에), ‘만년³에’ (=때문에), ‘벌³로³’ (=건성으로, 속내를 모른 채), ‘수₁시₁간’ (=한동안, 한참) 등의 부사, ‘밥³ 먹느³나?’ (=밥 먹느냐?), ‘머₁ 먹느³노?’ (=뭐 먹느냐?)에 나오는 ‘-느₁나, -느₁노’와 같은 어미 등도 경남 지역이 아니고서는 접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다.

음소는 같은데 성조 차이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도 경남 방언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눈³’(目)과 ‘눈₁’(雪), ‘발³’(足)과 ‘발₁’(簾), ‘밤³’(夜)과 ‘밤₁’(粟) 등의 차이는 이미 고전적인 것이고, ‘너³무’ (=임신)와 ‘너₁무’ (=너무), ‘사³리’ (=이마의 주름)와 ‘사₁리’ (=사려(思慮), 사례), ‘봉³개’ (=잔칫집 등에서 참석자에게 싸 주는 간단한 음식)와 ‘봉₁개’ (=여아의 음부), ‘가³마이’ (=가마니)와 ‘가₁마이’ (=가만히, 가망(可望)+이) 등등 성조로써 뜻이 달라지는 예도 한둘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이지만,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표현이 적지 않음도 경남 방언의 맛이다. 한 예로, 의문사인 표준어 ‘왜’에 해당하는 경남 방언 ‘와₁’와 ‘만₁다꼬’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와₁’는 ‘왜’처럼 의미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만₁다꼬’는 말할 이의 불만스런 감정이 포함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다. 그리하여 “와₁ 그러는³데³?”는 그냥 까닭을 몰라 “왜 그러는데?”의 의미이지만, “만₁다꼬 그러는³데³?”라고 하면 당신이 그럴 이유도 없는데(없다고 판단하는데), 왜 그러는지 당

신의 행동이 불만스럽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들을 이가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표현도 있다. 높임의 조사인 표준어 ‘요’에 해당하는 경남 방언에는 ‘예’와 ‘요’가 있는데, 전자는 ‘공손’과 관련되고 후자는 ‘불손’ 내지 ‘건방짐’과 관련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한 예다. 따라서 “철³이³는예 집³에 갔³어³예.”(=철이는요 집에 갔어요.)라고 해야 할 자리에, “철³이³는요 집³에 갔³어³요.”라고 말하면, 들을 이에게 서울말 흉내 내기, 배운 티 내기와 같은 불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었던 것이다.

같은 의미라도 대상에 따라 가려 써야 하는 말이 있음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표준어 ‘먼지’에 해당하는 말로 경남 방언에는 ‘미검³’과 ‘문지³’가 있는데, ‘미검³’은 집 밖에서 나는 양이 많은 먼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문지³’는 집 안의 먼지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표준어와 어형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말이 있음도 경남 방언 말맛의 하나이다. 표준어에서 ‘가맣다’는 ‘①밝고 넓게 검다, ②거리나 시간 따위가 아득히 멀다’ 등등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 그러나 경남 방언의 ‘가맣다’는 ②와 같은 뜻으로도 잘 쓰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것에 비해 힘이나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도 잘 쓰이는 것이다. 의미 확대의 양상이 표준어의 그것과는 다름을 보여 주는 한 예라 하겠다.

전국 방언과 견주어 볼 때, 경남 방언은 추상화가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은데, 이런 현상은 특히 식물 관련 이름에서 현저히 드러난다. 표준어의 도토리¹와 상수리는 ‘꿀³밤³’으로 불리고, 민들레²썸바귀³고 들³빼기³는 모두 ‘썸³내³이’로 불리며, 미루나무¹양버들²포플라이태리포플러² 등 미루나무류는 재미있게도 ‘버³들³나³무’로 통칭되고 있는 것이다.

낱말 만드는 방법의 한 특징으로는 ‘-앵이’(실체 발음은 ‘-애이’) 접미사가 유난히 많다는 점을 빼트릴 수 없다. 웬지는 몰라도 이 접미사는 동물과 관련되는 명사에 잘 붙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몇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새³이(=강아지), 까래³이(=반딧불이), 깡³채³이(=까치), 꼬래³이(=꼬

3) ‘꿀³밤³’의 ‘꿀’은 ‘꿀꿀이’, 즉 ‘돼지’를 일컫는 말이다. ‘도토리’의 ‘들’ 역시 ‘돼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보면, 이 두 표현은 돼지와 관련지어 명명되었다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리), 모³개³이(=모기), 미₁꾸래³이(=미꾸라지), 벌개³이(=벌레), 빼개³이(=병아리), 암새³이(=염소), 토깨³이(=토끼), 포³래³이(=파리) 등. 이 접미사는 기구나 도구에도 생산적으로 첨가되고, 4) 인체⁵)나 식물 이름⁶)에도 접미되는 예가 발견된다.

그런가 하면, ‘저³실<겨울’(=겨울), ‘비야³리<뿌리’(=뿌리), ‘씨둥³<똥’(=똥) 등의 예는 국어사 연구와 관련하여 훌륭한 암시를 던질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같은 의미(meaning), 다른 형식(form)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 경남 지역에서(여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 같은 형식으로 쓰인다는 보장은 없다. 이곳에서는 표준어와는 꽤 다르면서 경남에서 복수로 쓰이는 몇몇 상징적인 어휘를 인근 지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이런 작업은 공통어 선정 작업과 관련하여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추’에 해당하는 경남 방언은 ‘정구³지’계와 ‘소³풀’계로 대별된다. ‘정구³지’는 경남 북동 지역과 경북 대부분 지역, 그리고 무주장수 등 경상도에 접경한 전북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소³풀’은 경남 서남 지역에서 발견된다. 광양여수순천 등 경남에 접경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소불’로 발음된다.(전남전북 대부분 지역은 ‘술 : ’로 불린다.) 봄철, 그해 처음 돌아나는 ‘정구³지’는 사촌과도 나눠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와 별미를 자랑하는 남새의 하나이다. ‘소³풀’을 성조 표시 없이 ‘소풀’로만 적으면, 이것이 ‘소³풀’(=부추)인지, ‘소₁풀’(=소가 먹는 풀)인지 그 누가 알겠는가?

‘석쇠’의 경남 방언형은 경남 북서부의 ‘적세’계(적세, 적시, 적수, 적체,

4) 갑때이(=대님), 개,뜨베³이(=주발 뚜껑), 까₁꾸래³이(=갈퀴), 꼬베³이(=고베), 소,드베³이(=술뚜껑), 소,시래³이(=쇠스랑) 등.

5) 꼬매³이(=꼬마), 꼬,시래³이(=고수머리, 굽슬머리) 등.

6) 나,시래³이(=냉이), 칠개³이(=칠) 등.

적들)와 경남 중남부의 ‘모³태’계(모³태, 모³때)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경북·전남·전북 일대에서 어형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는 반면, 후자는 경남의 옛 가야 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따라서 ‘모³태’계는 가야어 계통의 말이 아닌지 조심스레 진단해 볼 수 있다. 늦가을, ‘깎³비’(=술가리, 소나무 낙엽) 불에 ‘깎³치’(=갈치)를 ‘모³태’에 구워 반찬으로 먹던 그 고소한 기억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경남 방언의 ‘대³님’은 서부의 ‘다³님’계(‘다³님, 대³님, 단³님, 댄³님’ 등)와 중·동부의 ‘갭땡³이’계(‘갭땡³이, 꼬땡³이, 가³부땡³이, 갭땡³이’ 등)로 양분되고 그 사이에 넓은 등어 지대(等語地帶)가 존재한다. 인근의 전남·전북이 모두 ‘다³님’계이고, 경북의 중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곳이 ‘다³님’계인 것으로 보아 경남의 ‘다³님’계는 전라도 방언 혹은 경북 방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 이외 지역의 ‘갭땡³이’계는 경남과 인접한 경북의 고령·달성·청도·경주 등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북 지역인 의성·청송·군위·경산·영천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경남 방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를 보완한다고 하면, 필자는 ‘청미래덩굴’부터 손보자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름이 길어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분포에서도 ‘청미래덩굴’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아래의 ‘5’ 참조). 이 말에 대한 남부 방언의 명칭은 경상도의 ‘망¹개’계와 전라도의 ‘맹¹감’계(‘맹¹감, 멩¹감, 명¹감, 멩¹감, 밍¹감’ 등)로 크게 나누어진다. ‘망¹개’가 전라도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북 무주이고, ‘맹¹감’류가 경상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경남 함양·산청·하동·남해·사천 등지이다. 찰떡을 ‘망¹개’의 잎으로 둘러싼 것이 ‘망¹개³떡’인데, 추운 겨울밤, “망¹개떡 사 : 러~!”라는 골목길 외침 소리는 참으로 정겨웠다.

의미는 같고 형식이 다른 또 다른 재미있는 말로 ‘고³뻬’를 들 수 있다. 이 말은 경남 북동부 쪽의 ‘이³까³리’계와 남서부 쪽의 ‘꼬³뻬³이’계로 대별된다. 경북에서는 소수 지역을 차지하는 몇 명칭을 제외하면, 역시 ‘이³까³리’계(‘이³까³레, 이³까³리, 이³타³리’ 등)와 ‘꼬³뻬³이’계로 나누어 지는데, 전자는 경북 중·남부 내륙 지방이 그 분포지이고, 후자는 동

부 해안, 서부, 중부 일부 지방이 그 분포지이다. 전남은 모두 ‘꼬뽕이’계이고, 전북은 ‘꼬뽕이’계가 절대 우세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까리’계는 경남의 북동부, 경북의 중·남부를 잇는 지역이 그 진원지라 할 수 있고, ‘꼬뽕이’계는 전라도 일대와 경남의 남서부, 경북의 서부·중부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형이라 할 수 있다.

‘수제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방언형은 역시 ‘수제비’계(‘수제비, 수지비, 밀수제비’ 등)이다. 경북·전남·전북 등 경남 인근 지역만 해도 절대 다수가 ‘수제비’계(‘수제비, 수지비’)임이 방언 조사 자료집에서 입증된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수제비’계 외에 ‘밀짱국’계(‘밀짱국, 장₁국, 밀₁까리장₁국’ 등)와 ‘밀제비’계(‘밀제₃비, 밀제₃비’)가 더 있고 지역별 분포도 서로 대등해서 눈길을 끈다. 따라서 ‘밀짱국’과 ‘밀제비’는 경남 특유의 낱말로 보아 무방할 듯하다. ‘수제비’계는 경북·전북과 인접한 거창, 전북 접경 지역인 함양, 그리고 그 동쪽에 위치한 산청 일부, 경북과 접경한 창녕·밀양·울산, 그리고 창녕 남쪽에 있는 함안(창원 일부 포함) 등지에서 발견되는바, 이는 경북·전북 방언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밀₁짱국’계는 양산·김해·통영·거제, 그리고 창원 일부 등 남동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한편, ‘밀제₃비’는 ‘밀₁짱국’에서 ‘밀₁’을, ‘수제₃비’에서 ‘-제비’를 따서 만든 혼성어인데, 합천·의령·진주·하동·사천, 그리고 산청 일부에서 쓰고 있는 말이다.

4. 도기 용기류 명칭에 얽힌 사연

전통 농촌 사회에서 용기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경남 지역에서 발견되는 중요 도기 용기류인 ‘도가₃지, 증두₃리, 단₃지, 도₃오, 추마₃리, 두리₃미, 드₃무, 사₁구’에 얽힌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기로 한다.

‘도가₃지’(=독)는 배가 부르고 운두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손잡이가 없다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특징일 것이다. 도가지는 간장김치술 따위를

담아 놓는 데 쓰이는데, 그럴 때는 각각 ‘장₁또가³지, 짐³치도가³지, 술₁또가³지’라 불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가지를 ‘수티³이’라고도 불렀는데, ‘큰 수티³이’(스무 말들이), ‘중₁간 수티³이’(열 말들이), ‘작₁은 수티³이’(닷 말들이) 등이 있었다. ‘부₁꿈채³기’(=숨바꼭질)할 때 ‘구신’(=술래)으로부터 완벽하게 어린 몸을 숨겨 준 것의 하나는 ‘장₁뚝간’(=장독대)의 ‘장₁또가³지’였다.

크기만 다르고 모양이 (거의) 같은 도기 용기류로 ‘중₂두³리’와 ‘단³지³’를 빠트릴 수 없다. ‘단³지³’는 일반적으로 키가 60cm 정도인 항아리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보통 다섯 종류가 있었다. 열 개 한자리 단지, 여섯 개 한자리 단지, 다섯 개 한자리 단지, 세 개 한자리 단지, 두 개 한자리 단지. 보통의 단지보다 더 작은 것을 가리켜 ‘총₁각단³지³’, 그보다 더 작은 것을 ‘단³지³새³끼’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모양은 같고 도가지와 단지 사이의 크기쯤 되는 것을 가리켜 ‘중₂두³리’라 한다. 지역에 따라, ‘웅티³이, 웅₁데이, 웨₁지리³기 또는 웨₁지래³기’ 등의 이름이 중두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지와 거의 같은 크기이면서 배가 부르지 않고, 손잡이가 달린 것은 ‘도³오’(=동이)로 분류된다. 손잡이가 달린 것은 ‘갈³미’(=갈무리)용이 아니고 운반용이었음을 뜻하는데, 동이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물₁또³오’(=물동이), ‘새₁비젓₁또³오’(=새우젓동이), ‘술₁또³오’(=술동이), ‘짐₁치₁도³오’(=김치동이) 등은 용도에 따라, (그냥)‘도³오’, ‘사₁도³오’(=사동이)는 재질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곧₁은₁도³오’(=곧은동이) 또는 ‘선₁도³오’(=선동이), ‘수₁박₁도³오’(=수박동이)는 모양에 따라 나뉜 이름이다. 동이의 밑바닥에 구멍을 내어 콩나물을 기를 수 있게 한 것은 ‘콩₁지름₁도³오’(=콩나물동이)인데, 도가지를 이용한 것은 ‘콩₁지₁름₁시₁리’(=콩나물시루)라 불렀다.

동이와 같이 운반용이면서도 마개를 사용하는 도기 용기류로는 ‘추₁마³리(또는 ‘추₁무³리’)와 ‘두₁리³미’가 있다. 모르긴 해도, 도기 용기류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모습을 한 것은 ‘추₁마³리’일 것이다. 단지나 동이보다 조금 큰 키에 배가 유난히 부르며, 훌쭉한 목 위로 넓적한 아가리가 짝 벌려 있는 질그릇이다. 간장이나 술 등을 넣어 운반하는 데 쓰였지만, 밀알 지

방에서는 똥을 논밭으로 옮기는 데도 쓰였기 때문에 이는 ‘똥₁추마³리’로 불렸다. 그러나 경남의 대부분 지방에서 똥은 ‘똥₁장군’(=오줌장군)으로 운반되었다.

‘두리³미’(=두루미, 두루미병)는 배가 둥글게 부르고 운반용이라는 점에서 ‘추마³리’와 비슷하나, 손잡이가 없고 목이 길며 크기가 작다는 점에서 그것과 차이가 난다. ‘메₁사’(=묘사)를 지낼 때나 혼인 잔치를 할 때 맑은 술을 넣어 등에 짊어지고 가는 데 사용된 것이 ‘두리³미’였다.

‘드₁무, 버지³기, 사₁구’도 한 동아리로 묶어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드₁무’(=드므)는 운두가 낮고 너비가 너므며 아가리가 매우 큰 그릇으로, 먹는 물을 저장하는 데 쓰였다. 이는 ‘버₁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드므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그보다는 작고 아가리는 더 넓은 용기를 ‘버지³기’라 불렸다. 이는 주로 빨래를 하는 데 이용되었다.

‘버지³기’의 축소판을 ‘사₁구’라고 한다. ‘사₁구’는 ‘보₁오³쌀’(=보리쌀)이나 쌀을 씻는 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는 흔히 ‘보₁오³쌀사₁구’로 불렸다. 그릇의 안쪽에 가로세로의 촘촘한 금이 새겨진 것은 보리쌀 등이 잘 씻기도록 한 배려의 결과였다. ‘꼭대³기사₁구’ 혹은 ‘꼭₁닥사₁구’, ‘도₁랑사₁구’ 등의 세부적인 이름이 있었다는 점도 덧붙여 둔다.

‘사₁구’나 ‘버지³기’와 같은 모양의 그릇 바닥에 네 개 또는 다섯 개 정도의 둥근 구멍을 내어 떡을 찌는 데 사용한 것은 ‘시₁리’(=시루) 또는 ‘떡₁시₁리’(=떡시루)라고 한다. 시루에는 두 말들이, 한 말들이, 닛 되들이, 한 되들이 등 여러 크기가 있었다.

5. ‘공통어’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경남 방언 성격 일부를 탐색해 보았다. 그러나 한 방언의 성격이 어휘적 차이만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음운적·문법적 성격은 물론, 관용적 표현 등 여러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때 그 성격은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땅 이름에 대한 연구도 방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짧은 지면으로 이러한 성격을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연구 자체의 중요성에만 머물지 말고, 민족어의 특성과 다양성을 지켜 나가는 데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표준어 문제이다. 우리의 표준어가 ‘서울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표준어는 서울말 중심이 아니라 ‘공통어’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방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표준어가 그러한 바탕 위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한 예로, 앞서 언급한 ‘청미래덩굴’을 보기로 하자. 남한에서 이 의미를 갖는 낱말은 크게 ‘망개’계(‘망개, 몽개, 똥개’ 등), ‘맹감’계(‘맹감, 멩감, 명감, 멩감, 밍감, 명과’ 등), ‘청미래덩굴’계(‘청미래덩굴, 청미래덤불’ 등), 그 밖(‘통갈, 땀바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망개’계는 경상도 전역, 충남·충북 일부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쓰이고, ‘맹감’계는 전라도 전역, 충남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 반면, ‘청미래덩굴’계는 경기 일부 및 충북 일부 지역에서 쓰일 뿐이다.(‘통갈, 땀바구’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다.) 이런 분포를 감안해 보면, 적어도 ‘청미래덩굴’은 표준어로 선정되지 말았어야 하는 낱말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우리가, 경남의 몇몇 어휘가 그 인근 지역의 어휘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던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한 대비는 음운·문법·관용적 표현 등 언어의 제반 층위로 확대되어 가야 하고, 이런 작업에 북한의 방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년도부터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같은 질문지로서 남북한 방언학자들이 동시에 지역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 가는 슬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가악중³에³’(=갑자기) 시작하려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